

“쌍용차 회장 해고자 복직하라”

조계종 노동위, 성명 발표

쌍용차 노조지부장 단식농성이 32일째(10월 1일 기준) 접어든 가운데, 조계종이 쌍용차 임원진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 노동조합 지부장은 해고자복직 및 노사협상타결을 요구하며 32일째 팽배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단식 중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는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7년째 복직을 위해 길거리에서 싸우며 그 사이 28명의 동료들을 떠나보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기한 없는’ 복직 약속은 제안해선 안 될 가혹한 일”이라며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위는 “쌍용차 대주주 인도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신주들의 선전으로 흑자를 거둘 경우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것이며, 2009년 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이후 티볼리 개발로 경영이 호전되며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인력 필요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에 여전히 미온·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아름 기자**

1만원 템플스테이 전국 79곳 사찰서 개최

사업단 10월 19일~11월 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스님)이 올 가을 1박 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시한 ‘관광 주간’ 기간에 동참하며 템플스테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기존의 행복만원 템플스테이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내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75곳에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공식 홈페이지(fall.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총 1만 명에게 당일 템플스테이는 5천원,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1만원에 제공한다. **신성민 기자**

군포교 인프라 구축... 10만 수계장병 시대 도래

조계종 군종교구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

2005년 9월 28일은 한국불교 군포교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조계종에서 최초로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킨 것이었다. 군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기존 군불교위원회를 교구로 승격한 것이 바로 군종교구의 탄생이었다. 불교계의 많은 관심 속에 탄생한 군종교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종교구가 이룬 성과는 매우 많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포교 인식 개선 성과

조계종 군종교구 출범 후 10년 동안의 시간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불교계에 알렸다는 의미가 크다.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다. 초대 군종교구장에 등극한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맡아 초석을 닦았으며, 2009년부터는 용인 반야선원 회주 자광 스님이 2대 교구장으로 노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을 신축하는 성과를 남겼다. 현재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3대 군종교구장을 맡고 있다.

군종교구는 출범 이후 특히 장병 수계에 혁혁한 성과를 냈다. 최근 7년간 수계인원을 보면 2008년 8만 7,700여명에서 2009년 9만 1,100여명, 2010년 10만 2,800여명, 2011년 10만 3,500여명, 2012년 11만 4,530여명, 2013년 10만

5,000여명, 2014년 11만 6,500여명 등으로 꾸준히 그 수가 늘어왔다. 이는 군종교구가 중심에서 수계법회를 여는 한편 일상 사찰의 참여를 독려한 바 크다.

군포교 전진기지인 군법당 건립에도 힘써 2012년에는 군종교구가 중심이 되어 숙원사업이었던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도 성료하였으며, 398곳 법당 중 노후화된 법당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 계층별 불자관리에서 교육단계에서의 지적

호국연무사 불사 및 후원 확충 민간성직자 지원 및 관리 과제 “청년 불자 양성 기회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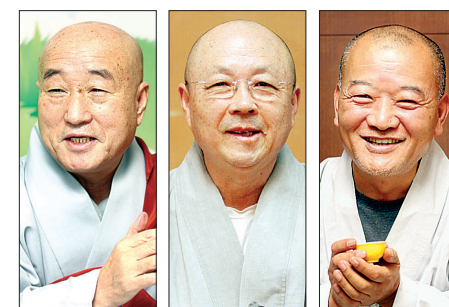
숙적인 관리에 힘써 2014년 불자생도들이 10%가량 늘어나는 한편, 불자사관제도 유발상조제도에 2015년 상반기에만 12명이 지원했다. 전군 간부불자 통합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한 것이 성과로 현재 116곳의 법당 4500여 개 부불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군 최초로 여성 군종장교로 비구니 스님이 파송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 군속 독신 조향 도입 이후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종단 내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2012년 5월 2일 열린 호국연무사 낙성식. 연면적 5281㎡에 최대 5000명 수용 가능한 대작불사였다.



2015년 1월 2일 열린 새해 첫 수계법회



일면 스님 자광 스님 정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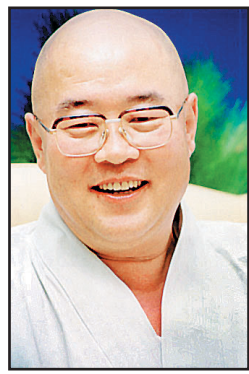
전역 장병 관리 등 숙제
하지만 군포교 활성화에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로 군포교가 고착화되며 타종단의 군속 진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출범 초기부터의 난항이 최근에는 갈등까지 빚고 있다. 천태종이나 태고종, 진각종

등 다른 많은 종단이 군포교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신교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 성직자 지원 문제도 관건이다.
오랫동안 군포교에 힘쓰고 있는 삼보회

박호석 법사는 “군속 법사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군법당이 아직도 많다. 포교사들이 이런 군법당을 관리하고 있지만 포교사에 대한 종단이나 교구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군법당을 지원하는 형태다 보니 포교사들도 쉽게 지치고, 군포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대 전 파라미타 청년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에서 신도자료를 받아 군생활시 수계불자관리, 전역 후 지역 민간 사찰로 인계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수계장병들이 군생활에서 세운 역량을 제대 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노인의 날 맞아 불교계 수훈 잇따라

연꽃마을 故각현 스님, 국민훈장 목련장 추서 길음복지관도 대통령 표창



제1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힘쓴 불교계 인사 및 단체들이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입적한 연꽃마을 각현 스님(사진)이 제1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에 추서됐다.

정부는 10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의전당서 개최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현 스님을 비롯해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 정착에 이바지한 인사 3명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각현 스님을 대신해 현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명 스님이 대리 수여 받았다.

각현 스님은 1990년 8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5년 간 약 70여개 시설을 운영하며 ‘노인복지활동가’로서 매진해 왔다. 이밖에도 경기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 경기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경기복지미래재단 초대 대표이사, 전국노인단체연합회 부회장 등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대표

이사 성은, 관장 장제원)도 10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길음복지관은 노인들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환원활동 지원, 지역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등 노인복지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부터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아파트택배사업-길음실버메신저’는 노인복지 및 마을경제 발전을 위한 결합모델로 시행됐다. CJ택배·한진택배와 연계해 길음동 지역 임대아파트 거주 또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에게 택배 일자리를 나누고, 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왔다. 또한 길음친환경 먹거리사업단 ‘실버그린이(Silver Greeny)’ 사업은 노인들이 직접 친환경 먹거리 제조 및 판매를 실시해 지역주민 건강 유지와 함께 도농상생경제를 도모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민추본, 북중접경 역사문화순례 ‘성료’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40여명 참석

민족공동체추진본부 3기 불교지도자과정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끝으로 회향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일환으로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일정에는 사무총장 진효 스님을 비롯해 약 40명이 참여했다.

순례단은 첫날 여승감옥 및 안중근 의사 추모관을 방문해 독립선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3박 4일간 △2일차- 일보과, 호산장성(백장성), 압록강 단교 △3일차- 백두산 천지, 금강대협곡 △연변박물관 등 일정을 순회했다.
민추본 측은 “순례를 통해 막연하게 여겼던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일환으로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개최했다.

6천 여 비구니스님의 위상과 권익향상 육문스님과 함께 이루어갑시다

전국비구니회는 6천 여 비구니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방의 비구니스님들을 위해 일하는 승가의 구심점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 **기호2 육문**

육문스님 선거대책위원장

■ **중앙** 명성스님 경순스님 법운스님 경희스님 대인스님 묘관스님 정룡스님 경성스님 재희스님 자광스님 보각스님 적조스님 ■ **고문** 일범스님 운달스님 지문스님 범홍스님 지우스님 성우스님 정수스님 묘정스님 순행스님 정성스님 만오스님 남석스님 대련스님 상영스님 상훈스님 ■ **후보추대위원** 위원 권성스님 경룡스님 경현스님 능인스님 대성스님 대우스님 대원스님 도선스님 동숙스님 동찬스님 동호스님 명수스님 명준스님 명호스님 모순스님 문수스님 법륜스님 법안스님 법어스님 법일스님 분각스님 상령스님 상화스님 석인스님 선경스님 선관스님 성연스님 성범스님 성열스님 성옥스님 성주스님 성현스님 수현스님 수환스님 영안스님 영운스님 의성스님 이혜원스님 인성스님 일관스님 일류스님 일연스님 일진스님 임대스님 자현스님 재호스님 적인스님 정명스님 정요스님 정목스님 정연스님 정운스님 정운스님 정현스님 정선스님 지효스님1 탁연스님 탄형스님 해관스님 해만스님 해성스님 해주스님 행돈스님 행범스님 행오스님 현각스님 해도스님 해선스님 해옥스님 해운스님1 해운스님2 해원스님 해일스님 해천스님 해항스님 화정스님 효경스님 희원스님 (가나다순) **실무위원** 경조스님 고심스님 광현스님 급주스님 기원스님 대현스님 도현스님 명연스님 보경스님 소현스님 심원스님 연광스님 우송스님 유국스님 일범스님 일양스님 일중스님 임지스님 자명스님 재범스님 정관스님2 정운스님2 주석스님 지명스님 지명스님2 지홍스님2 진광스님 진명스님 진아스님 철우스님 행관스님 현빈스님 형운스님 혜조스님 (가나다순) ■ **선거대책본부장** 임대스님(대표 및 비대위원장) ■ **지역선거대책위 수석위원장** 법륜스님 ■ **사무총괄위원장** 진명스님 기획팀 혜조스님 조직팀 재범스님 재무팀 일범스님 홍보팀 진명스님 총무팀 대현스님 법무대외협력팀 행관스님